

북한 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안지영(인제대학교)

이 글의 목적은 젠더 시각으로 북한 영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북한 영화에 대한 기존의 여성 및 남성상 연구의 성과를 이어 본격적인 젠더 연구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젠더 관점의 영화 이론은 젠더 이론을 접목한 시네 페미니즘을 참조하였다. 젠더 연구는 남성 대 여성과 같은 관습적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젠더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 계급이나 연령 등 다른 사회적 범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 영화가 국가의 정치선전예술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국가’를 범주로 한 젠더 이론에 주목하였다. 북한 영화가 구현해야 하는 ‘주체형의 인간’은 국가조직인 당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를 일컫는다. 젠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북한 영화의 정치적 특성에도 부합한다. 북한 영화의 내용과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해당 시기의 통치 담론들을 젠더의 국가적 범주에 대입시켜볼 때 정치적 특성이 강한 북한 영화의 젠더 관계를 더 명료하게 살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젠더 기획을 분석하기 위한 다섯 가지 범주(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 노동)를 김정일 시기 북한의 통치 담론과 연관시켜 소개하였다. 이들 범주는 각각 북한 영화의 젠더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장르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제어: 북한 영화, 젠더, 주체형의 인간, 시네 페미니즘, 북한 통치 담론,
젠더 연구 범주

1. 서론

이 글은 정치적 특성이 강한 북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 예술사회학¹⁾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북한 영화를 젠더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이는 두 가지 문제의식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 학계에서 젠더 연구가 여성 연구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기존의 북한 영화를 통한 젠더 연구도 영화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나 남성상,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로 성과를 축적해왔다. 젠더는 사회문화적 성으로서 ‘관계’에서 구성되는 담론이다. 기존 연구의 성과를 이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젠더 연구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젠더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1) 빅토리아 D. 알렉산더(Victoria D. Alexander), 『예술사회학』, 최섯별 외 옮김(살림, 2010) 참조. 저자는 예술을 고독한 천재의 창조적 산물로 보는 창작 중심의 예술관에서 벗어나, 예술이 사회적 구성물임에 주목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예술들을 아울러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문화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 따라 예술의 생산·분배·소비 과정을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다양한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젠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젠더 시각으로 북한 영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하는 시네 페미니즘(Cine-feminism)과 젠더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영화의 기본적인 목표이자 주제인 ‘주체형의 인간’ 형상에 담긴 젠더 양상을 분석해볼 것이다.

둘째, 북한 영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되는 정치선전예술이다. 북한 영화의 정치적 특성과 함께 북한 영화 연구의 폐쇄적 조건은 예술의 생산·분배·소비 과정을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예술사회학 연구에는 분명 한계로 작용한다. 하지만 북한 영화의 젠더 형상을 통해 제작 주체인 북한 당국의 젠더 관념과 젠더 재현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만큼은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젠더 이론 중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를 위한 이론에 주목하였다. 유발 데이비스(Nira Yuval-Davis)²⁾가 제시한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이라는 범주는 북한의 통치 담론이 제시하는 국가정책의 영역과 매우 유사하다.

이 글에서는 유발 데이비스의 네 가지 범주에 ‘노동’ 분야를 추가하여³⁾ 북한 통치 담론과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체제 붕괴의 위기를 겪었던 김정일 시기에 나온 다양한 통치 담론을 대상으로 한다. 근대국가에서 ‘여성/남성’이 ‘국민’으로 호명되는 데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관계와 양상을 정확히

2) 니라 유발 데이비스(Nira Yuval-Davis), 『젠더와 민족』, 박혜란 옮김(서울: 그린비, 2012).

3) 정현백, 『여성사 다시쓰기』(서울: 당대, 2007) 참조. 정현백은 유발 데이비스의 네 가지 범주에 ‘노동력 재생산’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동의한다. 특히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및 주체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북한 영화의 특성상 노동문제는 보편적인 영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어야만 젠더 불평등의 근원적인 문제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범주를 통해 그 관계를 명료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 가지 범주에 상응하는 통치 담론을 재현하는 북한의 대표적 작품을 찾아 분석사례를 제시할 것이다.⁴⁾

2.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와 북한

1) ‘국가’를 범주로 한 젠더 연구의 필요성

젠더 연구는 문화와 사회와 학문에서 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젠더 연구는 어떤 확정된 성 개념이나 규범의 내용을 본질적이라고 보지 않고 성의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만들어지는가를 추적한다. 성의 개념에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는지, 정치적 권력의 분배과정과 사회구조 및 지식, 문화, 예술의 생산에 성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⁵⁾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일반화된 사회가 아닌 ‘국가’를 범주로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법과 정책을 통해 의무와 책임, 권리를 갖는 특정 위치를 개인에게 설정하는 현실공간이기 때문이다.⁶⁾ 국가를 별개의

4) 지면 관계상 분석 작품 목록을 신지 못하였으므로 안지영의 박사학위논문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285편의 작품 내용을 파악한 후 관련 내용으로 분류하고 주요 작품을 선정하여 젠더 경향을 파악한 결과이다.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5) 젠더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Christina von Braun)·잉에 슈테판(Inge Stephan), 『젠더 연구』, 탁선미 외 옮김(과주: 나남, 2002), 19~23쪽 참조.

6) 유발 데이비스, 우에노 치즈코(Ueno Chizuko), 정현백, 권명아 등은 젠더 문제에

범주로 다루는 것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젠더 관계와 국가 기획 간의 관계를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존재를 논하기 힘든 북한 사회의 젠더 연구를 위해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념 또한 구성되는 담론이라는 데 대해서도 동의가 필요하다.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인 것처럼 성차를 구성하는 주요한 사회조직의 하나로서, 또 사회주의체제나 가부장적 특성들을 모두 포괄하는 분석범주로서 근대 ‘민족’과 ‘국가’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민족, 국민, 국가’ 등의 개념 또한 근대가 시작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개념이며, 각각의 용어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변화되어왔다.⁷⁾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제국주의의 전 지구적 확장 과정에서 서양의 이론을 받아들이며 국가에 관한 새로운 개념화 작업이 시작되었다.⁸⁾ 근대 ‘국가’의 성립 과정은 동시에 여성/남성을 ‘국

대한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이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이들은 각각 연구 대상과 주제 및 시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연구가 지향하는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경향을 보인다. 니라 유발 데이비스(Nira Yuval-Davis), 『젠더와 민족』; 우에노 치즈코(Ueno Chizuko),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고양: 박종철출판사, 1999);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서울: 책세상, 2005);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서울: 당대, 2003) 등.

- 7) 박상섭, 『국가·주권』(서울: 소화, 2008), 247쪽. 국가의 개념은 국가에 관한 일반적 학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주어진 삶을 규정하는 큰 틀에 관해서 해당되는 사회가 갖는 관념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8)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를 경험한 지역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요체로 받아들여졌던 서양의 ‘nation’이 ‘민족’ 또는 ‘국민’, ‘국가’ 등의 개념으로 수렴되어온 궤적은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nation’은 민족 또는 국민, 국가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데 이 개념들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한국의 개념사에 초점을 둔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백동현, “대한제국기 민족인식과 국가구상”(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민'이자 '시민'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국가는 하나의 행위 주체로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그 사회의 젠더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근대 국가가 하나의 통일적인 공동체로서 구성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서 헤게모니적 이해를 근거로 여성과 남성의 특정 위치를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다양한 선전 및 조직수단을 활용하여 이러한 성별화된 대중 동원의 과정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객관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범주에서 젠더 기획을 연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지향을 가진다. 국민국가 내에서 또는 그에 의해서 '국민화'되어 감으로써 여성/남성으로 인식되는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이다. 또한 해당 시기 규율권력이 제시하는 젠더 규범을 모델로 한 '국민'의 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성 역할'에 따른 '국민화'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본연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⁹⁾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서울: 소명출판, 2004); 윤해동 외, 『근대를 다시 읽는다』(서울: 역사비평사, 2006); 앙드레 슈미드(Andre Schmid),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옮김(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07); 윤영실, “국민과 민족의 분화,” 『상허학보』, 25집(2009); 임형택 외, 『전통』(서울: 인물과사상사, 2010); 박노자 외, 『문명 안으로』(과주: 한길사, 2011);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사비평』, 통권 96호(2011); 이태훈, “민족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역사비평』, 통권 98호(2012); 장문석, “민족·국민(III) 내셔널리즘의 딜레마,” 『역사비평』, 통권 99호(2012) 등.

9) 우에노 치즈코(Ueno Chizuko), 『내셔널리즘과 젠더』 참조. 저자는 “민족이나 국민에 대한 관념은 하위 주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 안에서 모든 마이너리티는 전체 속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는 본질적으로 가부장제와 그 패러다임을 같이하므로 여성의 정체성은 더욱 억압된다. 가령, ‘위안부’ 피해 여성의 개인청구권을 ‘국가’가 ‘남편이나 부친’의 역할을 하여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국민 국가가 가부장제의 국가적인 확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이야말로

2) 북한의 '인민' 정체성과 젠더

북한에서 국가적 차원의 젠더 담론은 동아시아의 유교적 역사 전통과 식민지 경험, 사회주의체제라는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전쟁을 경험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국가화를 추진해온 과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유교 전통은 고대부터 동일한 유교문명권을 형성해온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이다.¹⁰⁾ 19세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유의 근대화 및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경우 각각 '양치현모'(일본)·'현처양모'(중국)·'현모양처'(조선)라는 규범적 모델을 전형화시켰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나 기준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¹¹⁾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국가건설의 주역은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계급으로 한정되었고, 친일세력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노동의 주체로, 농민이 노동자로서 인민 정체성을 부여받지만 남성과 여성 간 젠더 위계는 여전하였다. 여성의 경우 노동자가 됨으

'근대=시민 사회=국민' 국가가 만들어 낸 '창작'이다. '여성의 국민화', 즉 국민 국가에 '여성'으로 '참가'하는 것은 그것이 분리형이든 참가형이든 '여성≠시민'이라는 배리를 짊어진 채 국민 국가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 청구권 논리는 국가가 개인(의 이해)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 국가를 초월하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피해 여성과 그 지원 그룹이 싸워야 할 상대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가부장제이기도 하다", "근대·가부장제·국민 국가라는 틀 안에서 '남녀평등'이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10) 하야카와 노리요(早川紀代) 외,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이은주 옮김(소명출판, 2009) 참조.

11) 한성훈, 『전쟁과 인민』(파주: 돌베개, 2012) 참조.

로써 남성과 동등한 국민이 될 수 있었다.¹²⁾ 그러나 국가와 여성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국가 권력의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기존 젠더관계에서 개별 남성이 누렸던 가부장적 권력을 국가가 대신하고 대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의무는 확대되었다.¹³⁾

한편 한국전쟁과 이후 유일지도체제 형성 과정은 젠더 위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미국이 참전한 이후 38도선 이북 지역을 점령당함으로써 체제가 몰락할 뻔했던 위기를 겪은 북한 정권은 주민 감시와 통제, 규율을 강화하고 내부의 적과 반동분자를 처리해나갔다. 더불어 군인과 노동당(원)을 중심으로 민청과 사회단체 등을 통해 중앙권력을 말단 지방에까지 침투시키는 전일적 체제를 구축해나갔다.¹⁴⁾ 전일적 체제 속 ‘수령-인민’은 호혜적 관계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이때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는 각각의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면서 호혜적인 수령-인민의 관계를 고착화시켰다. 특히 이 두 제도는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를 유지, 재생산하는 장치로 작동하였다.¹⁵⁾

1995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선군정치는 2000년대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으로 북한체제의 ‘병영화’를 더욱 구조화하였다.¹⁶⁾ 국가안보와

12) 여성의 노동자화는 사회주의혁명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물질 토대 마련과 자본주의국가의 경제 발전을 따라잡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강조되었다.

13)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29집 2호(2013), 120쪽 참조.

14) 한성훈, 『전쟁과 인민』 참조.

15)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 정치,” 136~138쪽 참조.

16) 이하 박영자,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Vol. 25(2007), 52~56쪽 참조.

군사사업이 북한 권력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이 과정에서 체제 전반에 군사주의 문화를 확장하였다. 군대 중시와 일상화된 전쟁준비로 남성은 국가보위를, 여성은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주체로 젠더 역할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젠더 담론은 유교 전통과 사회주의국가 및 근대국가의 전시체제에서의 젠더 담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왔지만 김정일 시기에 이르러서는 전시체제에서 나타나는 젠더 담론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3. 젠더 시각으로 보는 북한 영화

1) 젠더와 영화: 시네 페미니즘¹⁷⁾

젠더 이론이 페미니즘 학계에서부터 활성화되어온 것처럼 젠더를 접목한 영화연구도 시네 페미니즘을 참조할 수 있다. 영화에 페미니즘 시각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존 개념과 틀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것이다. 시네 페미니즘은 영화에서 여성들이 타자화되어왔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온 영화이론이다. 그 결과 영화 이론과 비평은 물론이고 영화제작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획기적인 변화가 생

17) 페미니즘 영화이론을 ‘시네 페미니즘(Cine-feminism)’이라고도 한다. 이는 ‘시네마’와 ‘페미니즘’의 합성어이다. 시네 페미니즘 이론의 발달과정은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의 역사적 궤적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시네 페미니즘은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해졌다. 유지나·변재란, 『페미니즘/영화/여성』(서울: 여성사, 1993); 김소영 외, 『시네-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서울: 과학과 사상, 1995); 수잔나 D. 월터스(Susanna D. Walters),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김주현 외 옮김(서울: 또하나의문화, 1999); 서인숙, 『씨네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서울: 책과 길, 2003) 등 참조.

겨났다.

처음에는 주류 대중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속 여성 이미지의 유형과 이것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분석하는 ‘이미지 비평’에서 출발한다. ‘이미지 비평’은 영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의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남성관객의 욕망과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는지를 밝혀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비평은 텍스트 내의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한 이미지이다. 과도한 해석을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이미지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보수적이나 진보적이나’ 하는 식으로 단순한 이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것이 기호학과 정신분석학이다. 기호학은 영화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서사구조와 시선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에 담긴 가부장제적 무의식과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구조적이고 미학적인 차원에서 밝혀냈다. 정신분석학은 재현을 규정하는 문화적 요인들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상이한 성심리·욕망·쾌락·동일화 같은 문제들을 심도 있게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¹⁸⁾ 따라서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를 빚어내는 전반적인 재현체계에 내포된 성차별주의, 위계화된 남녀관계라는 문제와 더불어 분석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18) 정신분석학을 이론적 모델로 삼는 로라 멀비(Laura Mulvey) 등은 가부장제 문화에서 대중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여성은 사회 속에 실재하는 여성의 모습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남성의 욕망을 위해 ‘성적인 스펙터클’로서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미디어에서 여성은 한편으로 남성 욕망을 위한 시각적 소비의 대상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화된 자신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권력관계는 시선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여성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다. 수잔나 D. 월터스(Susanna D. Walters),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참조.

이때 재현된 여성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여성관객 모두를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람이론이다.¹⁹⁾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단순히 보여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발굴해냈다. 관객이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텍스트를 해독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텍스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가 독해되고 실행되는 방식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수용하는 관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치개념’을 활용하면서도 권력의 맥락들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²⁰⁾ 관객이 텍스트 읽기에서 전능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위장되면 텍스트의 생산과 재생산 속에 담긴 권력의 맥락들이 은폐될 수 있다. 시네 페미니즘이 여성문제에 입각해 있다면 젠더 시각의 영화 연구는 관객이라는 주체들이 지니는 다양한 위치, 즉 성별, 성적정성, 계급, 인종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²¹⁾ 예를 들어 제3세계 여성의 경우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남성 중심의 탈식민주의를 페미니즘화하는 작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 서구 제국주의 담론들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역사적 현실에 처해 있

19) 이하 수잔나 D. 월터스(Susanna D. Walters),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참조

20) 월터스는 기존의 이론들이 관객을 탈중심화하는 포스트모던적 기획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그는 ‘이미지화’이론과 함께 응시이론 등의 ‘의미화’이론이 갖는 한계 또한 짚어내면서 사회적 권력의 맥락과 개인적인 수용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모델을 제시한다.

21) 서인숙, 『씨네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 135~152쪽 참조.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의 경우는 인종과 젠더에 의해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제3세계 여성들은 서구에 의해 식민화된 아시아 국가의 식민이면서 남성의 지배에 종속된 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식민화를 경험하고 있다.

는 여성 및 하위 주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란 매우 어렵다.²²⁾ 하위 주체 개념을 젠더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담론의 장이 마련되어 여성 하위 주체의 목소리가 말하기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제3세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북한 영화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북한 영화는 정치선전예술로서 국가권력의 일원화된 제작시스템에 의해 제작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남성 지배 권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 일본 식민체제, 소련 및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과 함께 수립된 북한 정권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 인식을 압축적으로 형상하게 된다. 북한식 근대화를 추구하는 지배 권력(남성 및 일부 여성)의 응시 아래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여러 하위 주체들의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체형의 인간' 전형과 젠더

북한의 공식적인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북한은 주체의 문

22) Gayatri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Speculations on Widow-Sacrifice," *Wedge* 7/8(Winter/Spring, 1985), pp.120~130; 서인숙, 『씨네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 149~150쪽에서 재인용. 인도 출신의 여성 문화 연구가인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말하는 하위 주체란 그람시(Antonio Gramsci)의 개념을 활용하여 자본주의 속성에 의해 희생되고 착취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물론 성적으로, 그리고 인종과 문화에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저항적 주체 개념이다. 여기서 여성 하위 주체는 성, 문화, 인종의 중심 담론이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가장 주변화된 타자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3세계 여성하위 주체의 경험과 담론은 문화·사회·역사의 담론의 장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탈식민 여성 지식인이 여성 하위 주체를 역사의 주체로 환원시킬 때 비로소 제국주의/식민주의, 중심/주변, 남성 주체/여성 타자와 같은 이분법적 경계가 지워지고 인종, 문화, 성별, 계급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다중적 주체로서의 여성 주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관에 대해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확립함’으로써 독창성과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이 문예관의 기본 내용 중 우선되는 것이 ‘인간학’이다. 기존에 철학이나 문예이론에서 사용되어오던 ‘인간학’ 개념을 주체문예사상에서는 ‘문학의 본성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체적인 견해라고 주장한다. 주체의 문예관이 밝힌 인간학으로서 문학의 본성은 ‘인간과 생활을 그리는 것’이다. 인간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것은 인간 형상과 생활화폭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 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주체 인간학의 중요한 본질적 특징 중에서도 선행 사회주의문학예술과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주체형의 인간 전형’을 창조한 것이라고 강조한다.²⁴⁾ ‘주체형의 인간 전형’이란 수령이 준 정치적 생

23) 여기서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하여 창조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문학예술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새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하였다.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참조. 이 문예학 시리즈는 김정일 명의의 마지막 문예이론서인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을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서구 문예이론과 레닌 등 사회주의 문예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체문예이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4) 주체 인간학의 중요한 본질적 특징으로 “자주성 및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의 예술적 해명, 주체형의 인간 전형의 창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점을 들고 있다. “선행한 사회주의문학예술도 인민대중을 력사의 창조자로 형상하였으며 공산주의자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선행한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형상하고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표 1>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형상한 대표적 작품

인간 전형	‘본보기’ 작품	제시된 근거	전형 인물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자주적 인간):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피는 처녀> (가극 및 영화, 1972)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가난한 조선인민 속에서 새 시대의 자주적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 성장하는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빛나는 본보기	가난한 농민 가정의 딸 꽃분비와 오빠 철용이
	예술영화 <로동가정>(1971)	일제통치시기에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빈궁과 고역에 시달리던 로동계급이 광산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어 보람찬 생활을 누리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본보기	광산로동자가 정의 광록, 할아버지 춘보, 맏아들 한석

자료: 한중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제1권, 77~143쪽 참조

명을 빛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주체형의 인간은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을 지닌 이이다. 그 특질은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특질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둘째,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다. 셋째, 집단주의적 생명관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 윤리와 도덕이다. 넷째, 이 특질들은 대중적 영웅주의를 통해 실천적으로 구현된다. 다섯째,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아름답고 고상하다는 것이다.

<표 1>와 <표 2>는 이러한 특징을 형상화시킨 대표작 및 그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보기’ 작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북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주체나 서사 구조 등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에서 제시된 작품들에서는 일련의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젠더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지 못하였으며 수령의 혁명화 등과 령도선을 그리는 것을 기본과제로 내세우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표 2> 주체형 인간의 사상정신적 특질을 형성한 대표적 작품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의 내용	‘본보기’ 작품	전형인물
혁명의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영화 <조선의 별> (10부작, 1980~1987)	김혁, 차광수, 최창길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
	예술영화 <초행길>(1980)	해방직후 첫 병기공장 지배인 총렬
혁명의 주인공다운 태도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장편소설 <빈터우에서>(1987)	전쟁 직후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낸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주용녀
집단주의적 생명관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 류리와 도덕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1975)	철탐건설작업대 대장 억만
대중적 영웅주의(이를 통해 사상정신적 특질이 실천적으로 구현)	혁명영화 <조선의 별>	청년공산주의자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1971)	강연옥
	예술영화 <빈터우에서>	주용녀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	억만
공산주의적 인간성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1984)	제철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인 신철민

자료: 한중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제1권, 77~143쪽 참조

<표 1>은 자주적 인간, 즉 정치적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체형 인간 전형을 가장 잘 표현한 빛나는 ‘본보기’ 작품으로 꼽은 <꽃피는 처녀>에서 주인공 꽃분이는 혁명이 오빠에 의해 자신도 혁명가가 된다. <로동가정>에서는 한 가정의 할아버지와 아들들을 내세워 노동계급의 표상을 재현하였다. 기본적으로 남성 노동자 형상을 통해 모범 전형을 제시한다. <표 2>에서 언급한 주용녀나 강연옥과 같은 여성들도 있다. 이들 여성들의 경우는 꽃분이처럼 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혁명가로 이끌어졌거나 해방 이후 사회주의정권에서 수령과 당의 영도에 의해 성차별에서 해방된 여성 노동

자들로 재현된다.

이처럼 주체의 인간형은 ‘수령, 당, 인민’의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입각하여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 남성’을 기본표상으로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은 혁명가로 부상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계급을 유일한 표준과 분류근거로 삼는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성별논리와 질서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²⁵⁾ 실지 사회문화에서는 본질주의적 성별 상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새로운 권력구조 안에서 변화된 남녀 역할이 제시되었다.²⁶⁾

영화 서사에서 욕망의 언어와 인물의 욕망 시선이 없어짐으로써 스크린 속 인물형상은 비성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남성, 여성의 성별 대립과 차이가 상당히 약화되었고, 인물과 이야기에서 계급적, 정치적 대립과 차이가 성별 대립과 차이를 대신하였다. 동일한 계급에 속한 남성과 여성은 수령과 당이라는 정신적인 아버이를 둔 친밀하고 순결한 형제자매였다. 성별 차이가 모호해진 서사에서 욕망의 자리에는 정신적인 아버지(수령, 당, 제도)가 들어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원자가 피구원자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충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이와 동시에 비성별화된 인물형상과 서사가 개인 욕망과 개인주의를 부

25) 이하의 내용들은 다이진화(戴錦華), 『성별중국』, 배연희 옮김(서울: 여이연, 2009), 59~61쪽 참조. 저자는 자신 속의 타자성, 자신이 서 있는 정치적 위치에 대해 스스로를 ‘전 사회주의 출신/중국/여성주의 학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 영화의 젠더수사학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 영화 젠더 서사의 변화가 북한 영화화도 거의 유사하다.

26) 예를 들면 남성이 가진 권위와 지위 역을 여성이 맡을 수 있고, 봉건사회에서 꺼리던 남성상이었던 차상한 어머니 역을 인정미 넘치는 남성 지도자 및 당 간부가 맡을 수 있었다. 당시 성별 논리는 분명 이전과 달라진 젠더 서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계급 질서에 의한 사회 통합은 성별 질서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대체했으며 모든 것을 통괄하는 강령이 되었다.

정하고 잠재적으로 억압하였다. 주체의 혁명을 구현하는 서사 방식에서 개인의 사욕은 부끄럽고 불결한 것이 되었다. 이는 개인의 물욕과 정욕 등이 수령, 즉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서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라는 젠더 및 서사 논리는 전쟁 직후와 종파투쟁 과정에서 구축되기 시작했고,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혁명적 수령관’(주체형의 인간 전형)의 가장 높은 체현자로서 김정일이 제시되면서 후계자의 정당성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일명 ‘청년공산주의자’로 명명되는 김일성의 만주항일투쟁 동지들을 혁명가의 전형으로 추앙하면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공고화시켜나갔다. 이와 관련한 영화로는 <표 2>에서 언급된 본보기 작품 외에도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형상한 시리즈물인 <민족의 태양>(5부작, 1987~1991)과 함께 항일투쟁 동지들을 형상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²⁷⁾

게다가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주창하였지만 결국 여성 혁명가 전형을 따로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충실성과 혁명성에 더해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역할을 추가한 것이다. 그 전형으로서 김일성의 할머니 리보익과 어머니 강반석과 함께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을 추앙하도록 하였다.²⁸⁾

27) 이들 작품은 조선중앙TV에서 가장 많이 상영되는 예술영화이기도 하다. 이들 작품을 통해 수령을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주체형의 인간 전형이 ‘혁명전형’으로, 특정 젠더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28) 특히 김정숙의 행적을 소재로 한 영화는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제작되었고 [<두만강 기슭에서>(2003)], <친위전사>(1987)와 관련된 기록영화 등은 2014년 현재까지 조선중앙TV를 통해 꾸준히 방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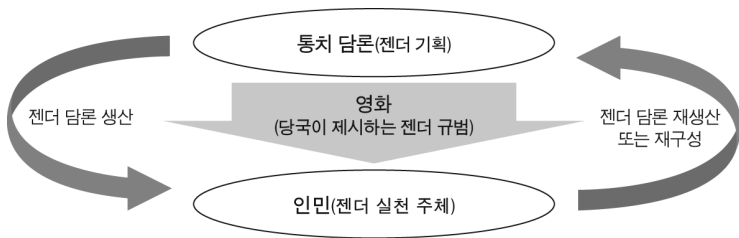
4. 북한 영화 분석을 위한 젠더 범주와 영화 분석 사례: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 노동

북한 영화가 지닌 국가의 정치선전예술이라는 특성은 젠더 연구에 있어서 한계가 아닌 유용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북한 영화를 통해 민족·국가 기획으로서 북한 정권의 젠더 기획은 분명히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의 차이를 떠나 근대화를 추진해온 ‘국가’ 차원에서 젠더 담론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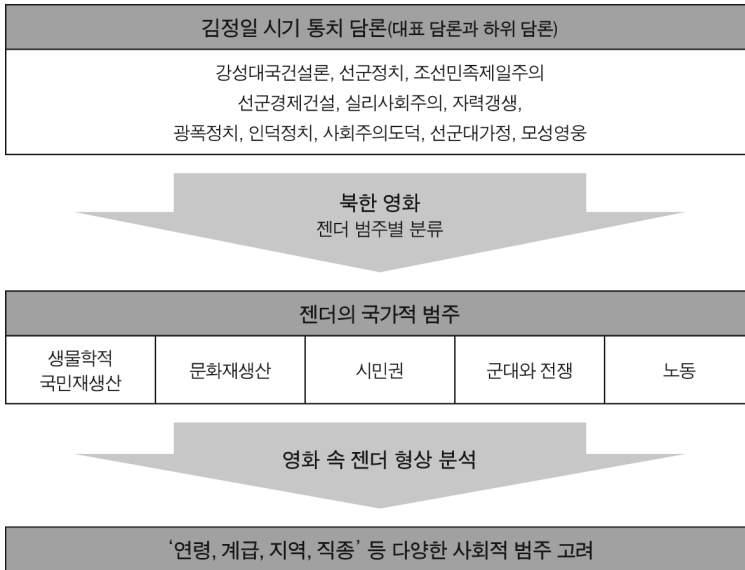
유발 데이비스는 젠더 담론과 민족·국가 담론이 서로 교차하고 서로에 의해 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분류에서는 국가가 젠더별로 국민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노동력 재생산은 국가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유착된 부분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 ‘노동’의 범주를 더하여 총 다섯 가지 범주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 젠더 범주는 김정일 시기 제시된 통치 담론과도 유사하다. 김정일 시기 북한 당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조선민족제일주의, 광폭정치’ 등의 통치 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담론들은 각각 젠더 범주인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정치, 노동’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특정한 젠더 규범을 제시하게 된다(<그림 1> 참조). 네 가지 범주에 대한 유발 데이비스의 이론과 함께 노동 분야 젠더 문제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북한 영화가 구현하고 있는 통치 담론에 대입해보고자 한다. 다섯 가지 젠더 분석 범주와 북한의 통치 담론이 어떤 연관성을

<그림 1> 가정 1: 북한 영화와 젠더 실천의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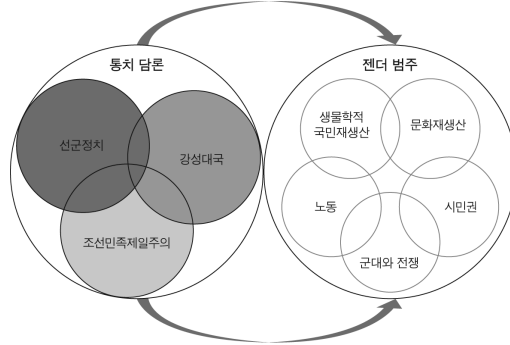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통치 담론으로 보는 북한 영화의 젠더 분석틀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영화 속 젠더 담론에 대한 분석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영화 분석 사례는 각 범주를 소개한

<그림 3> 가정 2: 다섯 가지 젠더 범주와 통치 담론의 조응관계



후 간략한 표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통치 담론을 젠더 범주에 대입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일지배체제인 북한에서 통치 담론은 사회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지배적인 가치관과 규범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예술이 국가적 수준에서 통제되고 생산, 분배, 소비의 일원적 시스템을 갖춘 북한에서 영화의 내용과 형식을 규제하는 것 또한 해당 시기에 강조되는 통치 담론이다. 영화 속 긍정인물들은 통치 담론을 실물처럼 재현한다. 이들의 형상을 통해 당국의 젠더 인식과 당국이 제시하는 젠더 규범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할 수 있다. 반면 당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정인물들을 통해 사회에서 다양하게 구성되는 젠더 담론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영화 속에서 구현되는 통치 담론의 구체적인 젠더 담론들이 민족·국가적 젠더 기획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젠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법과 정책을 통해 특정 위치를 개인에게 설정하는 현실공간이기 때문이다. 해당

<표 3> 다섯 가지 젠더 범주에 대응되는 통치 담론

젠더 범주	통치 담론	
	대표 담론	하위 담론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	선군시대 모성영웅, 선군대가정
문화재생산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 사회주의도덕
시민권	-	광폭정치·인덕정치, 혁명적 군중노선
군대와 전쟁	선군정치	혁명적 군인정신, 관병일치, 군민일치
노동	강성대국	실리사회주의, 과학중시사상, 선군경제건설(경제국방병진노선), 자력갱생

자료: 관련 문헌과 영화 형상을 참고하여 작성.

시기 통치 담론을 통해 젠더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영화에 담긴 사회적 맥락과 젠더 위계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다섯 가지 범주들은 서로 얽혀있으며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범주들은 다른 담론들과도 연관시켜 논의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통치 담론이 다섯 가지 젠더 범주와 상호작용하며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표 3>과 같이 젠더 범주에 대응될 만한 통치 담론을 대응시켜보았다.²⁹⁾

29) 통치 담론들을 각각의 범주에 대응시켰지만 실지로는 다른 범주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면 선군정치의 경우 군대가 전 사회의 생산과 건설 과제에 앞장서는 것과 국방공업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노동의 범주에도 들어가며, 군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시민권 범주에서 논할 수도 있다. 또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문화재생산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다. 광폭정치의 경우는 단지 지도자의 덕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오히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시민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광폭정치는 실제 논리 전개나 영화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주민들의 시민권이나 외국인의 시민권 문제와 관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좀 더 방점을 두는 범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살펴본 후 그 관계를 통해 북한식 담론체계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1)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선군시대 모성영웅’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어느 민족 집단체에 소속된다. 그것은 ‘한 핏줄’이라는 신화가 대부분의 민족 집단체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 담론에서 말해지는 여성의 재생산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 출생은 때로는 집단체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동시에 그 집단에서 태어나지 못해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기도 한다. 국가의 차별적 출산정책은 해당 ‘국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족-국가는 여성에게 민족 집단이나 구성원의 생물학적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은 인구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에 인구정책의 주된 대상이 된다.³⁰⁾

이러한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범주에는 북한의 ‘모성영웅’이라는 통치 담론이 대응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 배급체계마저 무너졌다. 직장에 매인 남성 세대주를 대신하여 생계 해결에 나선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또한 수많은 아사자의 발생으로 인해 1980년대 출산억제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1961년 11월 1차 어머니대회 이후 37년 만인 1998년에 2차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여기서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기여한 여성에게 ‘모성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해 모성영웅을 적극 칭송하였다.

‘선군대가정’(‘사회주의대가정’)도 생물학적 국민재생산에 미치는 영

30) 니라 유발 데이비스(Nira Yuval-Davis), 『젠더와 민족』 참조.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역사적 시기의 민족-국가 기획을 구성하는 헤게모니 담론에 달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구의 힘’, ‘우생학’, ‘멜서스’ 담론을 들 수 있다.

<표 4> 북한 영화의 젠더 분석 사례(1)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범주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범주의 기초 담론: “선군시대 모성영웅”, “선군대가정”		
하위 담론	주요 젠더 담론, 주요인물의 젠더	대표작
혁명적 군인으로 양육	·선군시대 어머니는 길벗 든 아들, 장애인 아들을 교양하고 치료하여 군대 입대시킴. ·홀어머니와 다섯 아들	<어머니의 행복> (2003)
군인의 아내로 양육	·군인의 아내로서 자세, 전사한 남편의 대를 이어 부대에 남도록 교양해야 함. ·홀어머니와 다섯 딸	<령장 없는 병사> (2000)
선군대가정 구현	·순직열사의 유자녀들을 입양하여 선군혁명의 대를 잇도록 양육해야 함. ·귀환동포 처녀와 홀아버의 재혼가정	<저 하늘의 연> (2008)

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담론은 국가와 사회를 하나의 큰 대가정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유교정치문화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문화를 결합시킨 것이다. 이 담론은 1980년대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이론화된 바 있다. 수령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인민은 수령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는다든 내용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것으로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은 1990년 10월에 제정된 「가족법」을 통해 공식화되었다.³¹⁾ 이러한 논리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뇌수이자 ‘사회주의대가정’, ‘선군대가정’의 가장 어른으로 표상되는 ‘아버이수령님’(김일성), ‘아버지장군님’(김정일), ‘아버지원수님’(김정은), ‘어머니당’(조선노동당) 등으로 국가 지도자와 집권당을 호칭하고,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받는 것이다.

31) 「가족법」 제1장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였다.

2) 문화재생산: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

민족·국가 기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유용하고 적절한 모든 자원들이 동원된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자원, 경제적인 자원도 있으며, 관습, 언어, 종교 그리고 기타 문화 산물들이나 기억들과 같은 문화적인 자원도 있다.³²⁾ 계급, 젠더, 정치 및 개인적인 차이들로 인해 민족·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도 특정 민족 기획들을 추구한다. 또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반대되는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동일한 문화자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자원은 특정 민족기획의 정치경제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민족을 대표하는 ‘재현의 집’과 ‘강요된 정체성’을 유발하기도 한다.³³⁾

문화재생산 범주에 대응되는 통치 담론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이다.³⁴⁾ 김일성이라는 탁월한 지도자와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족’이 제일이라

32) 문화는 사회재생산 실천에 의해 ‘안정화 속성’을 갖게 되는데, 사회재생산 실천은 단지 복제의 과정이 아니라 동기화와 욕망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이기도 하다. Williams Raymond, *Keywords* (London: Fontana, 1983); 윌리엄 레이먼드, 『키워드』, 김성기·유리 옮김(민음사, 2010).

33) 니라 유발 데이비스(Nira Yuval-Davis), 『젠더와 민족』 참조. 특히 여성들에게 이러한 ‘재현의 집’이 요구되는데, 이는 여성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민족의 정체성과 명예의 전달자라는 상징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여러 문화에서 여성상, 혹은 어머니상이 민족정신을 상징한다.

34) 김창근,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고양: 인간사랑, 2007), 53~80쪽. 북한 당국은 1980년대 후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 담론을 기획하게 된다. 영화를 포함한 문화예술계에서는 정권 수립 초기부터 소련식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에 의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도록 추진되어왔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자체는 거부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계급적 관점에서 퇴조하고 전통적 사회주의 이론과 결별하는 대신 혈연적 유대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민족주의 담론을 취하게 되었다.

<표 5> 북한 영화의 젠더 분석 사례(2) ‘문화재생산’ 범주

‘문화재생산’ 범주의 기초 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하위 담론	개요 및 주요인물의 젠더	대표작
김일성조선 김정일민족	·1930~1940년대 김일성부대의 항일무장투쟁 ·김일성 및 김일성부대원: 항일혁명 1세대	<밀림이 설레인다> (1997~2000)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 영화화 ·남한 출신의 월북자나 친북 성향의 인물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항일혁명1세대, 카프 작가, 노동자, 농 민, 인텔리 등	<민족과 운명> 시리즈 (1992~2003)
조선민족의 전통·상징	·여성 한복, 김치, 씨름, 서예로 민족전통 상징 ·남성 가족(전통 계승) 대 여성 가족(사대주의) ·1세대: 남성(모법적 기풍 실천) 대 여성(개인주의에 몰들) ·2세대: 긍정인물 남성(조선어학자) 대 부정인물 남성(합 영회사 부사장), 여성(여관 요리과장) ·3세대: 긍정인물 남성(김치연구사) 대 부정인물 여성(관 광안내원)	<우리의 향기> (2003)
체육 및 예술 민족주의	·체육 및 예술 분야 인재와 민족 관련 연구사라는 인물의 조합 ·예술적, 민족적 형상을 보여주는 젊은 여성의 몸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재구성)하는 긍지 높고 듬직 한 남성 ·외국합작영화·교예나 대집단예술체조 분야 여성 ·김정은 체제 들어 체육 및 예술계의 어린이, 여성 두각	<옥류풍경>(2000) <갈매기>(2001) <기다리는 아버지>(2013)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2014)
사회주의 문명국 (2012년부 터 담론화)	·2005년 이후 텔레비죤극창작단에서 집중 제작 ·일상의 생활문화를 규제하는 도덕규범을 생산, 후반으 로 갈수록 공연문화 등의 ‘문명국’ 기준 제시 ·1세대 전쟁노병인 남성이 도덕의 담지자 ·2·3세대 기혼남성이 주요 규범 위반자	텔레비죤토막극 <레이벌질과 우리 생활-생활의 거울>

는 논리를 펴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민족’국가를 기획해 나가게 된다.³⁵⁾ 이후 이 담론은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³⁶⁾으로, 나

35)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근거를 ‘수령, 사상, 군대, 제도’의 우월성에 두기 때문에 이는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와도 연결되고 나아가 ‘강성대국’ 담론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결국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시기별로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재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가 ‘김정일민족, 김정일조선’³⁷⁾ 등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민족 담론을 구현하는 영화 속 인물들을 통해 다른 민족과 구별 짓는 경계로서, 전통의 담지자로서 젠더 담론이 나타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이 문화재생산 범주에서는 일상 문화를 규제하는 ‘도덕’ 담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규범의 형상은 젠더별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TV드라마에서는 생활예절시리즈물을 통해 소위 ‘사회주의도덕’이라는 규범을 형상화하였다. 이는 제2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완된 주민들에 대해 체제 구심력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규율권력에 순응하는 이들에 의해 일상의 문화와 규범이 재생산될 수 있다. 반면 규범과 규율을 거스르는 이들에 의해 그 내용은 재구성될 것이다.

-
- 36) 김일성의 사망 100일이 되는 날 김정은은 ‘김일성민족’론을 제시하며 유훈통치와 민족주의 담론을 결합시켰다. 1994년 12월 31일에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라는 담화를 통해 내 나라는 바로 “김일성 민족이 사는 주체조선”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김일성주의’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민족’이라는 단어 역시 ‘해의동포’들의 입을 빌어 처음 나타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는 김일성주의의 등장이 사회주의형제국들로부터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민족이란 단어 역시 영구분단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86쪽.
- 37) 2012년부터는 김정일‘민족’이 아니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굳혀가는 듯 보인다. 김정일 사망 후 2012년 5월 2일에는 영국 단체 성명에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추앙한다고 중앙통신에서 소개했다가 그해 아리랑공연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으로 배경대를 꾸몄다. 2013년 8월 15일, 9월 8일과 2014년 7월의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란 표현이 등장하였다.

3) 시민권: ‘광복정치·인덕정치, 혁명적 균중노선’

시민권은 특정 여권 소지의 권리를 갖는다는 협의의 형식주의적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요약하는 포괄적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왔고 같은 국가나 사회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무척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권들의 위상이 지구적이며 초국가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과 그 책임들을 아우르는 “공동체 안에서의 안전한 구성원권”이라는 마셜의 시민권 정의를 따른다.³⁸⁾ 국가 시민권은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족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가장 포괄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포괄성이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자원들뿐만 아니라 이민과 귀화와 관련된 수많은 규칙과 규제들에 달려 있다.

국가를 넘나드는 시민권 개념의 복잡성처럼 이에 대응되는 북한의 ‘광복정치’, ‘인덕정치’라는 통치 담론도 대내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도자의 덕성을 강조하면서 배제되었던 계급계층을 포괄하여 주민 결속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남북한주민과 해외동포까지 아우르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³⁹⁾ 이는 본질적으로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

38) Thomas Marshall,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London: Heinemann, 1981); T. H. 마셜(Thomas Marshall), 『시민권과 복지국가』, 김윤태 옮김(서울: 이학사, 2013); 오장미경,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서울: 아르케, 2003) 참조. 쥬더나 국가라는 개념이 구성되는 것처럼 시민권 개념 또한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담론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9) 『로동신문』, 1993년 1월 28일 자를 통해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인덕정치와 광복

시켜 이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시키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강조하여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강한 규율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담론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⁴⁰⁾ 두 담론은 공통적으로 계급평등 원리에 따라 간부들이 ‘혁명적 균중노선’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차별 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주어 사회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어나가도록 보살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두 담론의 차이는 인덕정치가 지도자의 ‘덕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광폭정치의 경우는 복잡한 군중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남정책으로서의 민족주의적 담론을 상징하는 개념으로도 발전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던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로 규정했다.⁴¹⁾ 이후로도 조국통일과 관련된 내용에는 광폭정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기서 두 담론을 시민권과 연결 짓는 이유는 우선 사람의 과거

정치로 규정한 이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40)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89~93쪽 참조. 저자는 광폭정치가 대남용으로서 인덕정치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광폭정치가 대내정치용과 대남용 양자를 포괄하여 소개된다는 점에서 더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1) 김정일,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361쪽.

<표 6> 북한 영화의 젠더 분석 사례(3) ‘시민권’ 범주

‘시민권’ 범주의 기초 담론: “광폭정치”, “인덕정치”		
하위 담론	개요 및 주요 인물의 젠더	대표작
과거를 묻지 말고, ‘현행’ 위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담론과는 달리 계급적 차별이 묘사됨 · 부모의 ‘출신성분’을 포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조직 생활을 평가한 ‘사회성분’으로 다각적인 주민등록 및 평가제도 운영 · 대다수의 기본군중과 극소수 동요군중 묘사 	주로 2000년대 초기 작품이 해당됨
사회주의 이상적 인물전형, ‘군인, 당원, 영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군중’의 신분 상승 노력 · 군인, 영웅이 되려는 인물들이 다수, 남성 비중이 높으나 미혼여성도 다수 그려짐 · 반면 당원이 되려는 노력은 소수*주로 동요군중과 연결시켜 계급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입당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묘사) · ‘알고 보니 영웅의 자손’이었다는 출생의 비밀 · 열사, 영웅의 다투고 직업을 잇는 아내와 자녀들 	<p><고향산천>(2002) <녀병사의 수기>(2003) <수업은 계속된다>(2006) <청원>(2009) 외 대다수 작품</p>
‘영웅가정’의 모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스스로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묘사 · 모범형상: 1세대 영웅부모 또는 3세대 영웅청년 · 부정형상: 영웅가정의 자녀 및 가족들 중 주로 2세대 기혼여성이나 3세대 여성자녀 	<p><나의 가정>(2000) <이어가는 참된 삶>(2002) <내가 사는 가정>(2010)</p>
광폭정치에 의해 구원되는 ‘동요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좌제의 사슬에 갇혀 소외되고 고통 받는 계층 · 1세대가 저지른 친일 또는 친미(친한) 행적에 의해 주로 2세대 남성과 그 가족의 현재 고난으로 이어짐, 자녀는 배우자감에서 제외되는 차별 · 여성(월남자 아내)의 경우 현실 배경으로는 그려지지 않고 과거에만 그랬을 뿐이라고 묘사 	<p><민족과 운명: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2001~2003) <우물집녀인>(2002) <침단선>(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분(본인의 파오)에 의해 처벌되었다가 교화되는 인물 묘사, 자녀의 경우 연좌제 적용 · 이러한 묘사는 매우 드문 편, 특정 시기에만 제작 · 3세대 남성 → (2000년대 후반) 2, 3세대 여성 	<p><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1998) <민족과 운명: 농민편>(2002) <자기를 바치라>(2012)</p>

행위나 출신성분에 따라 계급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의 실현은 각기 다른 사회적 범주의 젠더 주체들이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급성이 된다. 또한

광복정치는 비단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담론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해외동포 및 외국인 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는 고립을 피하고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겠다는 북한식 세계화 담론이기도 하면서 인종을 배제하지 않는 시민권 차원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⁴²⁾

4) 군대와 전쟁: '선군정치, 혁명적 군인정신'

군대는 남성들을 전장으로 보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기능한다. 군대의 훈련은 '진짜 사나이'가 되는 것으로, 군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여성스러움'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과 어린이 및 취약한 이들을 자기희생적으로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사로서의 군인'이라는 '보호'의 신화와 연관된다.⁴³⁾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성 또한 하나의 일관된 남성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⁴⁴⁾ 여성학을 포함하여 기존 지식 체계에서 여성들 간의 차이는 젠더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남성들 간의 차이는 성별을 초월한 사회적

42) 또한 타민족이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체가 구성되지 못한 북한 사회의 특성상 영화에서도 이민족 시민권 사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물론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로서는 개방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43) 남성을 보호자로,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러한 신화는 군대의 모병에 중요한 동기가 되어왔으며, 남녀 모두가 전쟁을 지지해온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 시에 '영웅적'인 남성성을 펼쳐 보이는 '정의로운 전사'의 이미지는 때로 여성스럽거나 인종적 편견을 통해 위협한 존재로 묘사되는 적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사용되며, 보호의 필요를 더욱더 조장한다.

44)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과주: 자음과 모음, 2011), 26~27쪽.

<표7> 북한 영화의 젠더 분석 사례(4) '전쟁과 군대' 범주

‘전쟁과 군대’ 범주의 기초 담론: ‘선군정치’		
하위 담론	개요 및 주요 인물의 젠더	대표작
총대로 지키는 정의와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에 대한 규정과 고착화: ‘계급해방을 위한 내전’ → ‘민족해방을 위한 국제전’ ·현재도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전’ 상황 강조 ·일제시기와 한국전쟁 시기 반복적 회고 ·항일혁명세대와 전쟁노병세대에 최고 권위 부여 	대다수 군사 영화와 시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북 성향의 여성 일본화자를 내세워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군정치와 그 영도자’로 묘사 ·당시 정세에 대응하여 속도전으로 제작 ·CG 등 첨단기술 활용하여 현대전의 특성 살림 	<내가 본 나라> 2~5부 (2009~2010)
혁명적 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 영웅적 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대를 앞둔 남성 청년 및 남녀 신병들에 대한 교양 강조 ·주로 남성 군관 및 전사한 실제 영웅들의 모범적 행위 묘사 ·전쟁태세를 위해 ‘실전 같은 훈련’에 대한 강조 ·시기에 따라 ‘혁명적 군인정신’의 강조점 변화: 3세대의 불같은 기상과 실적 강조 → 선배에 대한 예의 및 동지에 대한 의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사 김영조>(1998) <복무의 길>(2001) <짧은 러단장>(2005) <군항의 부름소리>(2008)
어머니조국이자 여성 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의 후방을 책임지는 가족소대의 군관내내들 ·남성 주연의 군사물에서 여성은 보조적 인물로서 정신적 지주로 형상 -남성 신병 위기 시 ‘어머니, 선생님(유사 어머니)’의 당부를 회상하며 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관의 안해들>(2000) <우리를 지켜보라>(2008) 외 대다수 남성 주연의 군사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물에서 두드러지는 적대국 여성 첩자의 활약 및 섹슈얼리티 극대화, 주로 주인공 남성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거나 배신하는 역할 ·현대 배경에서는 아군 측 여성 첩보원이 주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날파람>(2006) <프성 없는 전구>(2014) 외 대다수 시대물
선군정치의 밑뿌리: ‘관병일치와 군민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영예사진’(심리적 보상) 활용 두드러짐 -발전소 건설장 지원해 간 남성 군관, 가족소대원으로 헌신하는 아내 	<소원>(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명적 동지애를 기본으로 한 관병일치, 군민일치는 결국 선군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지구책 ·시기별 변화: 부대 내 식량 자력생산을 위한 후방사업의 중요성 강조(2000년대 초까지) →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강조(2000년대 중·후반) → 부대 복지문제 강조(2010년 이후) ·주로 부대 내 책임군관과 정치간부들이 주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든 나의 집>(2008) <우리 정치지도원>(2010) <황철나무증대>(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에서 원호지원을 하는 병사의 가족들, 어머니와 아내, 연인이 특히 두드러짐 ·‘우리 ○○~우리 초소’ 운동: 농장, 공장 인근 부대와의 협력 ·민간인의 경우 주로 남성 고위 간부 또는 여성 인텔리가 주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다리는 처녀>(2001) <사랑의 종소리>(2003) <여기는 내 고향>(2010)

범주라는 성차별 의식에서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권력의 문제 그 자체이지, 남성들 간의 차이가 젠더와 관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들은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남성들에게도 억압적으로 작용한다.

국가 안보나 군사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의미는 각 사회의 역사와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남성성과 군사주의의 연계는 불확실하고 우연적이다. 어떤 사회에서 남성다움의 의미가 다른 사회에서는 여성다움으로 인식되기도 하도, 상호 모순되는 남성성들의 충돌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단 군대 조직 자체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 남성성의 관계모델이었다. 물리적 폭력에 기초를 두되 비상식적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하는 극단적인 수동적 남성성과 지배하고 조직하는 데 유능한 남성성, 즉 장교와 사병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이는 사회적인 계급 구조를 반영하고 공고화한다.

전쟁과 군대라는 범주에 대응되는 북한의 통치 담론은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영도방식이자 사회주의 건설방식으로, 사상적으로 무장된 군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의 중심이 되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제시되었다.⁴⁵⁾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들의 사회 결속력이 이완되면서 가장 통제된 조직이었던 군대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때 군대는 단순히

45) 선군정치 개념의 공식화 및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8집 1호(2008). 이외 서유석, “북한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 재생담론화 과정과 실천양상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부승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상관관계,” 『사회과학연구』, 19집(2011); 이성권, “김정일의 선군리더십과 ‘조선인민군’”(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등을 참조.

전쟁과 조국방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 전선에 앞장서 국가경제 희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 ‘혁명적 군인정신’ 또한 중요하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고난의 행군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 ‘영웅적 희생정신’을 그 내용으로 하며, 선군정치가 부각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⁴⁷⁾ 이는 다시 전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정신으로서 확산시켜 나갔다. 이 정신에 입각하여 혁명적 의리로 선군정치를 담보하는 ‘관병일치’와 ‘군민일치’도 강조되었다.

5) 노동: ‘강성대국, 실리사회주의, 자력갱생’

최근 더욱 가속화되는 전 지구화 체제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는 민족·국가 기획과 관련해서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전 지구화는 여성 빈곤을 양산하고 대규모 이주를 촉진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는 상황에서

46) ‘선군정치’는 군대와 군인을 사회통제 및 경제건설의 주력군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선군사상’으로까지 이론화 및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 및 지도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헌법에서 주체사상과 동일한 위치에 놓기도 하며 통치사상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2009년도 헌법 개정 및 2010년도 당 규약 개정 시, ‘공산주의’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지배이념으로 ‘선군사상’을 공식화하였다. 김정은도 집권 이후, 유훈통치를 통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난국과 국제적 고립의 두 가지 핵심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볼 때, 당분간 선군정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47) “혁명적 군인정신은 강성대국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 무기”라고 강조되었다.

민족·국가 ‘공동체’ 내부의 여성은 온전한 시민권을 가지기 힘들다. 사회의 여러 소수자들 또는 하위 주체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⁴⁸⁾

노동 범주에 대응되는 북한의 통치 담론은 기본적으로 경제난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도록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자력갱생’이다.⁴⁹⁾ 1990년대 중반의 체제 위기를 한 고비 넘기면서 북한은 새로운 국가 전망으로서 ‘강성대국 건설’론과 그 실현을 위한 3대 중시사상(사상·총대·과학기술)을 제시하였다.⁵⁰⁾ 2000년대 초반에는 ‘실리’가 강조되었다. ‘실리사회주의’는 온정적이고 경직된 계획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교양 및 문화개혁의 성격이 담겨 있다. 이 시기에는 ‘경공업 및 농업제일주의’ 등도 함께 강조되었고 영화도 다양한 경제 부문을 배경으로 하였다.⁵¹⁾ 기존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은 ‘선군경제 건설론’으로 발전하였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과학 담론을 반복

48) 존 베일리스(John Baylis) 외, 『세계정치론』, 하영선 외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12) 참조. 세계 저소득층 10억 명의 인구 중에서 5분의 3이 여성과 소녀들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더 장시간 노동하고 있음에도 소득은 남성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못하며, 여성이 하는 노동의 많은 부분은 무급의 재생산 또는 보살핌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도 고위직에 진출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남성보다는 적은 보수로 일하고 있다.

49) 북한에서 ‘자력갱생’ 관련 담론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노동력에 대한 사상적 동원이면서 또한 실질적 의미로서 지역의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1950년대나 1970년대 경제 건설 당시의 그 추동력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붉은 기쟁취’, ‘제2의 천리마대진군’ 등이 강조되는 식이다. 자력갱생 정신은 1990년대 중반 체제 위기를 극복한 이후 더욱 칭송되기에 이르렀다.

50) ‘과학중시사상’은 IT기술의 발전 등 국제적 수준을 따라잡아 고립되고 낙후된 경제 상황을 일시에 극복해보려는 담론이다. 담론상으로는 과학기술로 인민들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듯하였으나, 실제로는 과학기술 개선 및 발전과 함께 국방력을 다지는 데 전념했다.

51) 하지만 2005년 이후 실리의 개념이 다르게 제시되면서 자력갱생 담론이 좀 더 강조되었다.

<표 8> 북한 영화의 젠더 분석 사례(5) ‘노동’ 범주

‘노동’ 범주의 기초 담론 : “강성대국 건설”			
하위 담론	개요 및 주요 인물의 젠더	대표작	
실리 사회주의와 선군경제 건설담론	속도전으로 자력갱생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로 자력갱생을 위해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양어장, 주택 건설 등 식의주문제 해결에 총력전 · 흡사 전투현장 방불, 장비 없이 맨손 노동으로 사고와 부상 위험이 높으며 희생도 잦음 · 돌격대노동자: 청년, 군인, 제대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강도사람들>(2000) <그들은 제대병사였다>(2002)의 대다수 노동 소재 작품
	‘실리’ 및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작품들의 주요 화두: 모범적인 사회진출과 새 세대 교양 · 2000년대 후반 ‘영재’ 양성 강조: 예술, 과학, 체육계 어린이, 청소년 비중 커짐(주로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녀학생의 일기>(2006) <산촌에 피는 노을>(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초 실리에 맞는 실적경쟁 강조 · 기성세대의 낡은 사업방식과 온정적 사회주의 비판 · 성별직종분리 현상 뚜렷함 · 인텔리, 지식을 갖춘 노동자, 과학인재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지배인>(2001) <침단선>(2002) <충북>(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후반 자력갱생은 ‘침단’을 향하던 것에서 ‘생명’을 건 더욱 치열한 전투로 변화 · 실리의 정의 변화: 진정한 실리는 ‘인민들의 정을 지켜내는 것’ · 혁명적 원칙을 지키는 1·2세대가 더 부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선>(2009) <인민이 너를 아는가>(2011) <자기를 바치라>(2012)
사대주의와 낡은 관습에 물든 부정인물: 현실적 인물 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와 ‘선군경제’ 담론 간의 딜레마: 강조점에 따라 노동윤리 변화 → 긍·부정 형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1998) <회연기>(2000) <가정의 재부>(2000) <기다려지는 사람>(2004) <오늘의 10명 당원>(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습과 규범에 도전하는 청년세대> · 부정형 남성: 폭력성과 연계, 유혼(혁명의 계승)을 거부, 노동현장에서 이탈, 직업 귀천 및 성별 직종 따짐 · 부정형 여성: 정신적·물질적 욕구 표현에 능동적, 열악한 농장이나 단광을 떠나 도시로 이동, 온정에 휩싸여 대의(실리)를 놓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신주의와 탈법의 기로에 선 기성세대> · 2000년대 초반 기성세대 남성의 부정부패상 두드러짐 · 2000년대 후반 가부장적 권위와 가사, 육아에 대한 여성 역할이 더 강조됨 · 부정형 여성: 남편·아들 뒤에서 부정부패 사주, 일상에 안주하여 가족이기주의에 빠짐, 공명심에 출세지향적 또는 보신주의적 간부 등 · 부정형 남성: 가족을 보살피는 유머러스한 아버지, 사리사욕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거나 무기력한 간부, 무심하고 게으르고 무례한 세대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서오세요>(2001)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2001~2003) <내 고향의 바다>(2005) <생활의 거울> (TV연속도막극) <행복의 수레바퀴>(2010)

하면서 ‘과학정치’를 더욱 강화하여 고비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상당할 정도의 국가안보와 독재체제의 안전을 획득해왔다.⁵²⁾

이 담론들이 표면적으로는 젠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드러나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인물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젠더 담론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의 내용을 담은 법과 제도가 사문화되고 성별 직종분리와 가사 및 육아 등 재생산노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 범주를 통해 계층과 직업에 대한 의식, 노동윤리 및 노동권 등이 젠더와 함께 구성되고 변화되는 내용들이 포착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젠더 시각으로 북한 영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 및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두 가지 특성에 주목하여 각각 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북한 영화 연구가 여성 및 남성이라는 어느 한 성에 주목하였던 데에서 나아가 ‘관계’의 개념인 젠더로 접근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젠더 연구는 남성 대 여성과 같은 관습적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젠더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 계급이나 연령 등 다른 사회적 범주와

52) 김도연, “김정일 시대 북한 과학기술담론의 정치”(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2).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데서도 과학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2008년 이후 예전의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첨단돌파운동’으로 진화시킨 다음, 그것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첨단지도자로 만들어졌고 그의 권력승계는 정당화되었다.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젠더 관점의 영화 연구를 위해 시네 페미니즘을 살펴보았다. 이미지 비평에 머물렀던 초기의 시네 페미니즘도 점차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발굴해냄으로써 텍스트가 독해 되고 실행되는 방식의 역동성에도 초점을 맞추게 된다. 나아가 관객이라는 주체들이 지니는 다양한 위치, 즉 성별, 성정체성, 계급, 인종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시네 페미니즘에 젠더 연구의 성과가 접목되어온 결과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여성’이라는 단수적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 범주에 위치하는 복수의 여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지배 권력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을 포함한 하위 주체들의 위치를 밝히고 그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영화를 살펴본다면 특히 정치선전예술이라는 특성에 따라 남성 지배 권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 일본 식민체제, 소련 및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과 함께 수립된 북한 정권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 인식을 압축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북한 영화는 ‘주체의 문예관’에 의해 인간학으로서 ‘주체형의 인간’을 형상하고 있다. ‘주체형의 인간’ 형상은 보편적인 인간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특정한 젠더를 재현하고 있다. ‘본보기 작품’으로 제시되는 작품만 보아도 젠더 편향이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영화를 통해서도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여러 하위 주체들의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영화가 지닌 특성을 한계가 아니라 유용한 조건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를 위한

범주로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 노동’을 제시하였다. 이들 범주는 김정일 시기 제시된 통치 담론과도 유사하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조선민족제일주의, 광폭정치’ 등의 통치 담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각각의 범주와 상호작용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특정한 젠더 규범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젠더 범주에 대응되는 통치 담론을 개괄하였다. 각각의 범주에 상응하는 영화 분석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북한 영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 가능성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젠더 범주를 각각 해당 시기 통치 담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시 북한 영화에 담긴 사회적 맥락과 젠더 위계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 영화 속 통치 담론에 담긴 젠더 담론이 다섯 가지 범주의 일반적 내용과 얼마만큼 유사하거나 차이를 갖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젠더 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근대국가 체제의 특성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구성하는 젠더 주체들의 특정한 위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영화를 중심으로 젠더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나 영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예술장르 연구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과제로 남겨두게 되었다. 첫째,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실재하는 다양한 사회 담론들 및 젠더 주체들의 위치가 아닌 국가권력의 의도와 공식 담론에 치우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화 이면을 징후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네 페미니즘과 국가적 차원의 젠더 범주라는 두 차원이 유기적 연관성을 짓지 못하고 각각 단순한 내용으로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 시네 페미

니즘과 젠더 이론에 대한 더욱 깊고 풍부한 해석과 구체적 적용이 필요하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31일 / 채택: 4월 3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한중모 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파주: 자음과 모음, 2011).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서울: 책세상, 2005).
김소영 외, 『시네-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서울: 과학과 사상, 1995).
김창근,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고양: 인간사랑, 2007).
노리요, 하야카와(早川紀代) 외,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이은주 옮김(소명출판, 2009).
다이진화(戴錦華), 『성별중국』, 배연희 옮김(서울: 여이연, 2009).
레이먼드, 윌리엄(Williams Raymond), 『키워드』, 김성기·유리 옮김(서울: 민음사, 2010).
마셜, T. H.(Thomas Marshall), 『시민권과 복지국가』, 김운태 옮김(서울: 이학사, 2013).
박노자 외, 『문명 안으로: 문명 개념의 형성과 한자문화권에서의 번역 과정』(파주: 한길사, 2011).
박상섭, 『국가·주권』(서울: 소화), 2008.
베일리스, 존(John Baylis) 외, 『세계정치론』, 하영선 외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12).
브라운, 크리스티나 폰(Christina von Braun): 잉에 슈테판(Inge Stephan), 『젠더 연구』, 탁선미 외 옮김(파주: 나남, 2002).

- 서인숙, 『씨네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 정신분석학에서 포스트페미니즘까지』(서울: 책과 길, 2003).
- 슈미드, 앙드레(Andre Schmid),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옮김(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07).
- 알렉산더, 빅토리아 D.(Victoria D. Alexander), 『예술사회학』, 최셋별 외 옮김(과주: 살림, 2010).
- 오장미경,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서울: 아르케, 2003).
- 월터스, 수잔나 D.(Susanna D. Walters),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김주현 외 옮김(서울: 또하나의문화, 1999).
- 유발 데이비스, 니라(Nira Yuval-Davis), 『젠더와 민족』, 박혜란 옮김(서울: 그린비, 2012).
- 유지나·변재란, 『페미니즘/영화/여성』(서울: 여성사, 1993).
- 윤해동 외, 『근대를 다시 읽는다』(서울: 역사비평사, 2006).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서울: 소명출판, 2004).
- 임형택 외,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서울: 인물과사상사, 2010).
- 정현백, 『여성사 다시쓰기: 여성사의 새로운 재구성을 위하여』(서울: 당대, 2007).
- _____, 『민족과 페미니즘』(서울: 당대, 2003).
- 치즈코, 우에노(Ueno Chizuko),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고양: 박종철출판사, 1999).
- 한성훈, 『전쟁과 인민』(과주: 들베개, 2012).

2) 논문

- 김도연, “김정일 시대 북한 과학기술담론의 정치”(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영자,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Vol. 25(2007).
- 백동현, “대한제국기 민족인식과 국가구상”(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4).
- 부승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상관관계,” 『사회과학연구』, 19집(2011).
- 서유석, “북한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윤영실, “국민과 민족의 분화,” 『상허학보』, 25집(2009).
- 이성권, “김정일의 선군리더십과 ‘조선인민군’”(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이태훈, “민족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역사비평』, 통권 98호(2012).
- 장문석, “민족·국민(III) 내셔널리즘의 딜레마,” 『역사비평』, 통권 99호(2012).
-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과주: 자음과 모음, 2011).
-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29집 2호(2013).
-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사비평』, 통권 96호(2011).
-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8집 1호(2008).

3. 국외 자료

1) 단행본

Marshall, Thomas,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London: Heinemann, 1981).

Williams Raymond, *Keywords* (London: Fontana, 1983).

2) 논문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Speculations on Widow-Sacrifice,” *Wedge* 7/8(Winter/Spring, 1985).

A Study on a Gender Approach to North Korean Films

Ahn, Ji-Young(Inj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theory and method to analyze North Korean films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previous studies on North Korean movies have focused mainly on women. Escaping a customary dichotomy between men and women, film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hould be able to figure out how gender identity is formed through interactions with other social categories like class or age. This study also concentrates on gender issues at the level of the ‘nation state’ for the reason that North Korean movies have been used as a vehicle for propaganda. Their form and content have been regulated by control discourse of the time. In order to investigate gender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control discourses shown in the movies in the Kim Jong-il era were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biological reproduction of the nation, cultural reproduction, citizenship, military and wars, and labor. It is expected that these categories could be applied to the studies

of other genres of art as well as gender studies of North Korean films.

Keywords: North Korean films, gender, control discourse, gender studies